

코로나에도 혁신도시 기관장 성과급 400만원 올랐다

10개 기관장 평균 5498만원·8% 인상...한전 1억981만원 최고 한전KPS 2019년 809만원에서 8138만원으로 10배 이상 상승 11개 기관 정규직원 평균 328만원...지난해보다 43만원 올라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지난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 상임기관장들의 평균 경영평가 성과급은 전년보다 400만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한국전력 사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이 이전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0개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상임기관장들이 받은 평균 경영평가 성과급은 5498만원으로, 전년(5091만원)보다 8.0%(407만원) 올랐다.

혁신도시 상임기관장들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4827만원(2018년)→5091만원(2019년)→5498만원(지난해) 등 2년 연속 오르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상임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 1위

는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이 차지해왔다.

지난해 한전 사장 성과급은 1억981만원으로, 전년보다 0.5%(59만원) 인상됐다.

한전 기관장 성과급은 나머지 9개 기관 평균(6091만원)보다 4889만원 많은 금액이다.

한전에 이어서는 한전KDN이 9353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한전KPS(8946만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4989만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4575만원), 한국농어촌공사(4304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3743만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3535만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2912만원), 한국전력거래소(1646만원) 순이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은 전력거래소 이사장 성과급은 2600만원에서 1646만원으로,

■ 지난해 혁신도시 상임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

기관명	성과급	전년비 증감률
한국전력공사	1억981	0.5
한전KDN	9353	-3.6
한전KPS	8946	1006.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4989	0.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575	-34.9
한국농어촌공사	4304	0.6
한국콘텐츠진흥원	3743	29.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535	13.9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912	-36
한국전력거래소	1646	-38.1
평균	5498	8

(단위:만원·%)

(자료:알리오)

38.1%(-1014만원)나 쏘였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36.0%)과 방송통신전파진흥원(-34.9%), 한전KDN(-3.6%) 등도 성과급이 줄었다.

한전KPS 사장 성과급은 지난 2019년 809만

원에서 이듬해 8138만원으로 11배 수준으로 뛰었다.

콘텐츠진흥원(29.3%), 사학연금(13.9%), 농수산물유통공사(0.6%), 농어촌공사(0.6%), 한전(0.5%) 등 지난해 총 6개 기관장 성과급이 올랐다.

지난해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11곳의 일반 정규직원 평균 성과급은 328만원으로, 전년(285만원)보다 15.2%(43만원) 가량 올랐다.

직원 성과급 역시 최근 3년 동안 한전이 가장 많았다. 한전 정규직 성과급은 지난 2018년 773만원에서 2019년 788만원, 지난해 795만원으로 2년 연속 올랐다.

지난해 한전에 이어서는 한전KDN(726만원), 한전KPS(675만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423만원), 농어촌공사(253만원), 농수산물유통공사(240만원), 사학연금(121만원), 콘텐츠진흥원(118만원), 인터넷진흥원(112만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83만원), 전력거래소(64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 정규직원 성과급은 전년보다 32.9%나 줄었으며, 233만원(2016년)→134만원

(2017년)→125만원(2018년)→96만원(2019년)→64만원(지난해) 등 4년 연속 감소 추세다.

이달 발표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두 번째로 낮은 '미흡(D)' 등급을 받은 기관은 농어촌공사와 전력거래소, 콘텐츠진흥원 등 3곳이다.

A(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준정부기관) 단 한 곳이었다.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등 공기업 3개사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총 5곳이 B(양호) 등급을 받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2018년과 지난해, 올해에 걸쳐 3년 연속 C(보통) 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지난 25일 수정된 평가 결과에 따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B에서 C등급으로 집계됐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며 공기업·준공공기관만 해당한다.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들은 내년도 경쟁경비가 0.5~1%포인트 상당 삭감되며, 이들 임직원은 아예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이번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다음 달부터 기관별로 지급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난 28일 열린 '디지털뉴딜 CEO혁신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이 김춘진(오른쪽 네번째) aT 사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있다. <aT 제공>

사학연금, 은퇴 후 자산관리 비대면강의

퇴직예정 교직원 대상 진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8~29일 이틀에 걸쳐 퇴직예정 교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은퇴 후 자산관리·세무관련 비대면강의'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단법인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사학연금이 협업해 마련했다.

이달을 시작으로 오는 8월과 11월 3차례에 걸쳐 교육이 진행된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소속 전문 강사가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활용해 강의한다.

사학연금 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강의는 가계부채 증대, 금융채무 불이행, 과도한 과세

등 발생 가능한 경제적 문제를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강의 내용은 ▲자산관리 재테크 ▲부동산 및 금융투자 절세전략 ▲상속·증여 세 핵심 비법 등이다.

사학연금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교육을 대신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전용 플랫폼 '소셜 에듀·센터'를 개설했다. 이번 교육 녹화 영상도 게시된다.

주명현 이사장은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은퇴 설계·자산관리 등 노후준비가 절실히 필요한 퇴직자나 퇴직을 앞둔 고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은퇴·노후준비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디지털뉴딜 혁신자문위 신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지난 28일 '디지털뉴딜 CEO혁신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서울 aT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자문위원회에는 기관·학계·산업 전문가 1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디지털 뉴딜 사업 추진과 경영 혁신, 디지털 마케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낼 방침이다.

공사는 지난 2월 공개한 농수산물유통산업 통합 정보 플랫폼인 'KADX(kadx.co.kr)'와 사용자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한 농산물 수급정보 사이트 '농넷(nongnet.co.kr)'을 중심으로 농수산물 산업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태용(왼쪽 세번째) 한전 디지털변환처장과 박찬우(왼쪽 네번째) 삼성전자 IoT 비즈 그룹장이 '전력데이터 기반 홈 에너지 서비스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한전 제공>

에너지 절약 솔루션 한전·삼성전자 공동 개발

홈 에너지 서비스 업무협약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손잡고 전력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가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홈 에너지 서비스'를 공동 개발한다.

한전과 삼성전자는 최근 삼성전자 용인 디지털 프라자에서 '전력데이터 기반 홈 에너지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용 디지털변환처장과 박찬우 삼성전자 IoT 비즈 그룹장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 에너지'를 통해 한전의 전력 데이터와 스마트가전의 전력 소비량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에너지 모니터링 및 절약기능을 제공할 방침이다. 양사는 에너지 비용절감 및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홈 에너지 서비스를 공동 개발

한다.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는 전력데이터에 있는 에너지 사용량과 스마트가전 기기별 사용유형을 분석해 자동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조절하고 부재중 가전기기 동작방지 기능을 고객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알려준다.

이 서비스는 지난 25일 정식 개시했으며, 스마트폰 앱에서 스마트가전 디바이스를 추가하고 한전의 에너지 플랫폼인 'EN:TER'에 가입하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한전과 삼성전자는 한전의 전력데이터를 삼성전자의 스마트가전·모바일과 연동시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공사 모집합니다

▶ H. 010-2928-0202

시세 9억, 부동산

- ▶ 회사 정리 차원에서 그냥 드립니다.
 - ▶ 임야 29,455㎡(구 8910평), 전망 좋음
 - ▶ 대출 1억2천만원, 사채 1억, 승계 가능자
- 상담문의. 010-3605-5000